



23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공사현장인 신북읍 천전리에서 슈퍼모델 본선진출자와 ㈜두산 증가집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망치질은 서툴지만 뿌듯해요” 슈퍼 모델들 ‘사랑의 집짓기’

“비록 망치질은 서툴지만 뿌듯해요” 2006 슈퍼모델 본선진출자 32명이 23일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주)두산식품 BG 기업체 직원 31명과 함께 24일까지 공사현장에서 자재운반을 비롯한 청소 등을 하며 값진 땀방울을 흘렸다.

안전모와 공구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에 나선 이들은 이날 오전 공사현장에서 자재운반을 비롯한 청소 등을 하며 값진 땀방울을 흘렸다.

이날 짓는 사랑의 집은 춘천지역 무주택 서민 4가구에 제공될 예정이며 다음달 말에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헤비타트는 1992년 설립돼 지난해까지 12년간 국내 442가구, 해외 279가구 등 모두 821가구의 사랑의 집을 짓고 있다.

8,027m 시샤팡마 대장정 돌입 조선대 원정대 전의 천 단장

“남도 산악인 투혼 새기고 오겠다”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꾸려진 '2006 조선대 시샤팡마(Shisha Pangma : 8,027m) 원정대'가 지난 16일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 장비 및 식량 구입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20일 중국령 티베트 국경을 넘어 정상에 향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의천 단장이 지난 17일 카트만두의 한 식당에서 '1996 에베레스트-로체원정' 당시 눈사태로 숨진 다와 세르파의 가족들을 초청,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원정대를 이끌고 네팔 현지까지 와 지원 활동을 펼 전의천 단장(무역학과 교수)은 “지난 1996년 개교 50주년 당시 성공적으로 이뤄진 에베레스트-로체 원정에 이어 시샤팡마 남벽에 ‘남도 산악인’의 투혼을 새기고 돌아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지의 세계 개척하는 정신으로”

그는 이어 “히말라야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 정 10년만에 8,000m급 14와 가운데 가장 낮은 시샤팡마에 도전하는 것은 이를 시발로 나머지 12개 봉에 모두 도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2년여동안 힘들게 준비해온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성공적인 등반을 펼치겠다”고 부연했다.

전 단장은 “등반의 참된 가치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대자연의 불확실성과 고난을 자신

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 극복해내는 것이며, 보다 새로운 곳 보다 험준한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선구자적인 개척정신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 단장과 대원들은 특히 지난 17일 에베레스트-로체 등반 당시 원정대를 돕다가 눈사태를 맞아 숨진 다와 세르파(Dawa Sherpa·당시 40세)의 가족들을 10년만에 잊지 않고 다시 초청해 잔잔한 감동을 안겨줬다. 콤부지역에 거주하는 다와 세르파의 부인과 동생, 아들 등 3명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으며, 대원들은 카트만두의 한 식당에서 이들과 만찬을

‘에베레스트 등장’ 세르파 희생 잊지 않겠

함께 한 뒤 격려금을 전달하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전 단장은 “등정 성공의 밑거름이 된 다와 세르파의 희생을 항상 잊지 않겠다”고 다



집했으며, 다와의 동생인 겔루 세르파(45)는 “10년이 지나음에도 잊지 않고 찾아와준 대원들에게 감사한다”며 “그 정성을 언제까지나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신광철 원정대장(36·여수영일가스 대표)과 서상진·장정규(28·토목공학과4), 마수광(26·항공우주학과4), 고관섭(21·군사학부2)씨 등 조선대 산악회 선후배 5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오는 9월 말까지 시샤팡마 남벽을 극지법과 알파인 스타일로 도전한다.

이번 원정은 광주·전남을 젊어지고 나갈 대학생들에게 도전 정신과 패기를 심어주기 위해 기획된 것이며 광주일보가 후원한다.

/네팔 카트만두=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농협 고추건조기 등 영농자재 지원



광주농협(조합장 김기호)은 23일 충효동 이치영농회와 석곡동 용호영농회에 1천300만원 상당의 고추건조기와 보관창고 등을 무상 지원했다. 광주농협 김생호 상임이사는 “매년 각 영농회별로 영농자재를 지원, 조합원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머나먼 송바강’의 작가 박영한 씨 별세

‘머나먼 송바강’, ‘우묵배미의 사랑’ 등을 쓴 중견 소설가 박영한씨가 23일 오후 6시30분 경기도 일산 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59세.

박영한은 3년6개월 전 위암 수술을 받았지만 2년 전 병이 재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병세가 악화해 입원해왔다.

1947년 경남 함천에서 태어난 박영한은 연세대 국문학부를 졸업한 뒤 이듬해인 1977년 베트남 참전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실존과 역사의 의미에 주목한 중편소설 ‘머나먼 송바강’이 계간 ‘세계의 문학’에 당선돼 등단했다. 이후 창작에 전념하던 그는 1988년과 1989년 산업화와 도시화의 격류 속에서 소외된 도시민들의 삶과 애환을 해학적으로 그린 ‘왕통일가’와 ‘우묵배미의 사랑’을 출간했다. 이들 작품은 TV 드라마와 영화, 연극으로도 제작될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이밖의 작품으로는 ‘인간의 새벽’(1980), ‘노천에서’(1981), ‘지옥에서 보낸 한철’(1988), ‘장강’(1996) 등이 있다. 강원도 산골 오지에서 몇달간 머문 경험을 토대로 출간한 ‘카르마’(2002)는 마지막 소설이 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방인숙(53)씨와 딸 나비, 아들 노아씨 등 1남1녀가 있다. 발인은 25일. 백병원 영안실. 031-910-7444. /정성필기자 camus@

페렐만 ‘수학계 노벨상’ 끝내 거절

(필즈 메달)

러시아의 천재 수학자 그리고리 페렐만(40)이 수학계의 노벨상 격인 ‘필즈 메달(Fields Medal) 수상을 끝내 거부했다.

국제수학자연맹(ICU)의 회장인 존 볼 경은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된 제25차 국제수학자대회(ICM)에서 페렐만이 메달 수상을 거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존 볼 경은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페렐만은 국제 수학계에서 “표면상의 대표(figure-head)”로 비쳐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페렐만은 필즈 메달 수상을 거부한 첫 번째 인물이 됐다. 페렐만은 21일 발간된 미 주간지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주목할 만한 상을 받게 되면 윤리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서 수상 거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거부 이유와 관련,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왜 거부하는 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인터뷰도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결심 배경을 묻는 질문을 받고 “몇달 후에 전화해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TV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모두 러시아 채널”이라고 말했다.

페렐만은 3년 전 수학의 7대 난제 중 하나인 ‘푸앵카레의 추측’을 푼 공로로 이번 ICM에서 필즈 메달 수상자로 선정



〈그리고리 페렐만〉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수학자대회에서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필즈상을 수상한 벤더린 베르니(프랑스), 안드레이 오코코프(러시아), 테렌스 스타오(호주), 네빈린나상을 받은 존 클레인버그(미국), 올해 신설된 기우수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된 기요시 이토(일본)의 딸 이토 준코.

됐지만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푸앵카레의 추측을 푼 뒤 미국 매사추세츠의 클레이 수학 연구소가 제공하는 100만 달러 상금도 받지 않은 채 사라졌으며 현재 실직한 채 샹트 페테르부르크의 아파트에서 5만원 가량의 연금으로 노모와 어렵게 살고 있다.

캐나다 수학자 존 찰스 필즈(1863~1932)의 이름을 따 제정된 필즈 메달은 매 4년마다 열리는 ICM 때 그 해 초 기준으로 40세 이하의 뛰어난 수학자에게 수여되며 상금은 9천 500 달러이고 후안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이 메달을 직접 수여한다.

측이 23일 밝혔다.

ABI는 ‘마르퀴즈 후즈 후’,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흥 과정은 국제 의학회 리더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21세기를 빛낸 1천명의 지성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흥 과정은 지난 6월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로부터 올해의 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국립의료원 성형외과 흉인표 과장

‘21세기 위대한 지성’ 선정

국립의료원 흉인표 상형외과 과장이 지난 달 미국인명정보기관(ABI)으로부터 ‘21세기 위대한 지성’으로 선정됐다고 국립의료원

청소년이 가장 읽고 싶은 과학기술인은...

학술 김기문 교수 등 10명 선정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2006년도 ‘읽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에 김기문(사진)포항공대 화학과 교수 등 10명을 선정했다. 학술연구, 산업, 사회문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뽑는 이번 결과에서 학술 부문은 김기문 교수, 백경희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 유훈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 이영희 상원대 물리학 교수, 황준목 고등과학기술 수학과 교수(가나다 순) 등 5명이 선정됐다.

또 산업부문에는 박상일 PSIA(대) 대표이사, 박희재 에스엔유프리스전(대) 대표이사, 이현순 현대자동차(주) 사장 등 3명, 사회문화에선 김재완 과학문



화진흥회 회장,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등 2명이 각각 뽑혔다. 과기부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선정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읽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은 탁월한 업적으로 청소년에게 모범을 보이는 이공계 종사자를 매년 10명 내외로 선정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청소년과 일반인의 온라인 추천과 전문가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뽑고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가 이 중 최종 선정자를 낙점한다. 올해는 모두 407명의 과학기술인이 후보로 공개 추천됐다.

인사

◆대법원

◇고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김경중(수석부장판사), 광중훈, 김창석, 이상호, 이영구, 이종오, 조용구, 조희대, 이재운, 최재형
- ▲대전고법 성백현(수석부장판사), 권순일, ▲대구고법 최우식, ▲부산고법 박흥태(수석부장판사), 박형남, 성기문
- ▲광주고법 최완주(수석부장판사), 강형주, 김상철 ▲특허법원 최성준(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김용현(민사수석부장판사), 이상훈(형사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윤인태 ▲법원도서관장 민일영

◇지법 부장판사

- ▲대전지법 설범식

◇고법 판사

- ▲서울고법 김복형, 유승룡 ▲법원행정처 홍동기(윤리감사심의관)
- ◇지법 판사
- ▲서울중앙지법 김학준 ▲서울가정법원 이우형 ▲서울동부지법 천대엽 ▲수원지법 민기영 ▲청주지법 조영현 ▲부산지법 장홍선 ▲광주지법 이영한 ◇직무대리 및 직무대리 해제
-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기석(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해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심준보(직무대리) ▲광주지법 판사 서정엽(직무대리)

내방

- ▲박병열 (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 ▲변호사 공제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 ▲비둘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 ▲(사이)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 ▲광주대 평생교육원 자연법칙

지리수학 무료 시민 공개 강의=26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대 중앙도서관 5층.장묘법, 음·양택, 수맥, 유산록 등 소개. 011-609-8117, 670-2161

▲장익호 지리풍수학회 무료 공개 강좌=26일(토) 호남대 쌍촌캠퍼스, 오후 2시부터 6시, 풍수지리 천년의 허와실 영상 강의 등.011-608-4088

▲김진수 보성고 교장 정년퇴임식=25일(금) 오전 11시 보교 도서관 2층.

동창·동문회

- ▲복성중 제 27회 동창회(회장 김연중) 월례회=25일(금) 오후 7시 장어촌.368-3392
- ▲복성중 제 28회 동창회(회장 이혁) 월례회=26일(토) 오후 4시 OK 목장. 061-372-9433

▲광주지산초 제 38회 동창회(회장 최중채) 모임=9월2일(토) 오후 7시 무등골.011-620-5729

▲간진계산초교 14회 동창회(회장 김상삼) 모임=9월3일(일) 오후 7시 강진군 성전면 석정가든. 016-604-8492

중친회

▲광주 밀양 김씨 모임=28일(월) 오후 7시 주월동 태평양회집. 671-8785

모집

- ▲쌍촌종합사회복지관, 교육생 모집=한식·양식·중식·일식조리, 미용,제과·제빵, 피아노,컴퓨터 기초과정 및 자격증반. 문의 375-0035~6
- ▲수지침 요법 수강생 모집=수

지침으로 적십자 사회 봉사에 참여 할 자. 018-610-3360

▲제 14기 광주시민예술대학 수강생 모집=8월30일부터 9월25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12시 강의. 국악·무용·문학·미술·연극·연예·음악·건강·민속·교양 등으로 누구나 가능. 원서 교부는 30일까지. 전화 접수 가능. 528-9207

▲광주대 평생교육원 신체 교정 모집=31일까지. 30주 과정 수료 후 자격증 취득. 226-9657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가사도우미 무료훈련생 모집=여성 대상으로 훈련 기간은 9월11일~15일까지.

▲금호교육문화회관 제 22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어학·교양·음악·컴퓨터·사회·국악 등 39개 강좌 수강생 모집. 접수는 25일까지. 문의 360-6631~6.

▲사진회원 모집=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는 자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0289

▲동문철학원 멀리철학 수강생 모집=매주 3회 6개월 과정. 명리학·성명학. 376-9396

▲한미음장애인지원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부음

▲이순례씨 별세 오철민(프로야구 KIA 투수)씨 조모상=발인 24일(목) 오전 9시 부산 남청동 조은강 안병원 영안실. 051-610-9671

▲이연자씨 별세 오운영·준영·경자·경순·명희·명옥·유경씨 모친상 김흥택·김태운·조익현·김병태(특량반 환경보존회장·조선대 총동창회 사무총장)씨 빙모상=발인 24일(목) 보성 우리장례식장.061-852-4445

▲손완표씨 별세 형국·진·성혜·

성미·성숙·형희·성자·성은씨 부친상 이학재·이성호·장원일·김재일·송승찬씨 빙부상=발인 24일(목) 금호장례식장 301호. 227-4382

▲김보현씨 별세 성은태·은진·덕희씨 모친상 장혁·윤석·준석씨 조모상 박광화씨 빙모상=발인 24일(목) 금호장례식장 101호. 227-4385

▲송조용씨 별세 성기·순옥씨 부친상 김선열·홍성성씨 빙부상=발인 24일(목)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250-4407

▲정인수씨 별세 성기·혜련씨 부친상 박평근씨 빙부상=발인 24일(목)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250-4412

넓고 평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전) 대포: (062) 515-4488

▲박순옥씨 별세 문정수·정국씨 모친상 정중하·홍성정·김형중씨 빙모상=발인 24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515-4488

▲이귀순씨 별세 윤석재·철재·록훈씨 모친상 김치주(법무사)·김연채(전남지방청 외사계)·김천옥(전남도교육청 장학사)씨 빙모상=발인 25일(금) 충남대병원.

▲최명식씨 별세 은하·은영·은정씨 부친상 이용택씨 빙부상=발인 25일(금) 금호장례식장 402호.227-4314

▲김만길씨 별세 진수문·수복·수길·선애·순숙씨 모친상 서백수·유현상씨 빙모상=발인 25일(금)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250-4410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남묘특별분양
 ☎(062) 521-1100